

코오롱, 고강도 아라미드섬유 개발

세계 3번째로 Hercron 상용화 성공 ... 2006년 매출목표 500억원

코오롱이 고강도 섬유인 아라미드(상표명 Heracron) 사업에 진출한다.

코오롱은 1979년 아라미드섬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세계에서 3번째, 국내 최초로 독자기술로 상용화에 성공함으로써 현재 주요 관련기업들을 대상으로 제품 승인을 진행중이며 관련특허를 25건 보유하고 있다.

코오롱은 아라미드섬유 사업을 통해 2006년 500억원, 2008년 1500억원, 2010년 3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2004년 기준 아라미드섬유 관련제품의 세계 시장규모는 약 5조원으로 미국 DuPont과 일본 Teijin 2곳만이 생산하고 있다.

코오롱은 “아라미드 사업은 의류·화학섬유 중심의 사업구조에서 첨단소재 메이커로 변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은 물론 현존하는 아라미드섬유보다 우수한 초고강도(29g/d), 초고탄성(1200g/d 이상)의 차세대 아라미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라미드 섬유는 현존하는 섬유 중 가장 강한 소재로 같은 무게의 강철보다 강도가 5배 높고 500℃에서도 연소하지 않는 내열성과 화학약품에 대해 강한 내성을 지닌 고기능성 소재이다.

또 금속에 비해 가볍고 가공이 편리해 고성능 타이어, 호스, 광케이블 보강재 및 방탄소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IT 관련 소재 및 광케이블, 마찰재 적용분야에서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학저널 2005/04/14>